

여성 자영업자 10명 중 9명 “감정노동 힘들다”

광주 동구 실태조사...성차별적 호칭 등 여전

광주 여성 자영업자의 90%가 '감정노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장사와 육아,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어려움, 손님으로부터 성차별적 호칭을 듣거나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받는 등 피해 또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가게 10곳 중 9곳이 매출 감소로 종업원 수를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심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동구는 6일 '2022년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상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광주 동구 여성친화도시 의제발굴단과 총장동주민자치회 사랑나눔봉사 등이 지난 8~10월 광주 동구 13개 동 여성 상인 400명을 대상으로 고충과 해결 방안,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동구 여성 상인들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불만 고객 응대 등 감정노동(91.7%·복수 응답)을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휴식 시간 부족 및 건강 악화(76.1%) ▲가게 운영뿐 아니라 육아·가사노동 전담(63.5%) ▲성차별적 호칭(29.1%)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등 폭력 노출(15.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안정성(14.7%)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대의 경우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등 폭력에 노출(30.2%)되는 것이 힘들었다는 응답이 타 연령대보다 높게 집계됐다. 30대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안정성(25.5%), 40대는 육아·가사노동 전담(78.1%) 고충이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운영 맞춤형 교육(62.4%)을 첫 손

으로 꼽았다. 또 정서적·신체적 건강증진 사업(59.1%), 문화·예술 등 여가 프로그램 제공(52.8%), 여성상인 간 교류와 연대(31.9%) 등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광주 서구도 '소상공인·자영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89.2%가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발표했다.

서구는 지난 10월 17~31일 광주 서구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89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종사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이들의 81.4%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여가서비스업(71.7%), 일반소매업(66.3%), 교육서비스업(64.3%), 음식점업(58.7%)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의 50.1%는 종사자 수를 줄여 손실을 메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음식점(59.6%), 교육서비스업(54.3%), 여가서비스업(52.2%)에서 종사자 수를 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자체의 경영자금 대출 지원 등 특례보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57.1%로 가장 높았다.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16.4%), 소규모 시설개선사업(8.4%) 요구도 뒤를 이었다. 또 정부에게는 자금지원 및 대출금리 인하(57.3%), 세제 감면 및 임대료 지원(22.7%), 고용 및 인건비 지원(8.5%)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 동구와 서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감정노동 인식개선 및 가사노동·육아 분담 등 성평등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서구 급경사 이면도로 액상 제설함 설치

광주 서구는 양동, 농성동, 화정동 등 급경사지 이면도로 12곳에 제설작업을 위한 '스마트 액상제설함' 20대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 액상제설함은 원격으로 염수(鹽水) 용액을 살포해 쌓인 눈을 녹이는 제설장치다.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제어 기능이 들어있어 담당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든 제설액 살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수동 분사기를 이용해 직접 제설액을 뿌릴 수도 있다.

서구는 경사가 심해 도로 및 차량 통행이 어렵고 제설차량 접근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 급경사 구간에 스마트 액상제설함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서구 양동에 10대를 시범 설치하기도 했다.

서구 관계자는 "액상제설함은 도로결빙을 방지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최소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추가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시, 택시요금 인상폭 논의 중...도시가스요금 인상 검토

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18년만에 40% 가량 인상 예정(광주일보 12월 6일자 7면)인 가운데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도 내년부터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수년간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지만, 올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택시요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상 폭을 논의하고 있다. 용역에선 현재 3300원인 기본요금을 3800원, 4000원, 4300원으로 올리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상 요인,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3가지 방안이 아닌 중간대 요금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는 내부 방침이 정해지면 택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 수렴, 물가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요금의 35%인 할증 비율은 유지하되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할증요금 적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광주 택시요금은 2019년 1월 이후 변동이 없었으나, 그동안 인건비와 유류비, 보험료 등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요금은 메가줄(MJ)당 평균 1.9591원으로 2018년부터 동결됐다. 정부에선 지난 10월 도매요금을 인상했으며, 광역단체가 산정하는 소매 공급비율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소매 공급비율은 전체 요금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회용기 사용·물질약 합시다

6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센터 캘리그라피 봉사자들이 전남대학교 후문 일원에서 지구사랑 문구를 넣어 자체 제작한 머그컵을 나눠주며 기후위기 인식 개선을 위한 1회용품 사용 근절과 물질약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AI, 농장 밖은 이미 오염됐는데...”

전남 방역당국, 농가에 봉쇄 수준의 조치 요구

“사육 농장 밖은 이미 오염됐다고 봐야 합니다.” 전남도 등 방역당국이 닭·오리 사육농장주들에게 “농장 밖으로 나가지도, 들이지도 말라”는 사실상 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제한·집중소독·예찰 등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6일 나주시 동강면 육육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다.

예년보다 많은 철새들이 전남을 찾아 닭·오리 사육농장 인근 논·밭에 내려앉아 머물다가 이동하는 일이 잦은데다, 한파로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고 폐사체·철새 분변 등에서의 감염률(35%)도 예년(12%)에 견줘 2배 이상 높은 만큼 농장 밖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게 방역당국 분석이다.

5일부터 전국 최대 닭·오리 사육지역인 나주·영암에서는 AI 발생 농장 주변 반경 1km 이내 농가로 제한하던 살처분 범위를 2km까지 늘린 것도 한층

높아진 위험도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앞서, 4일 나주시 최대 가금류 사육지역인 세지·왕곡면 일대에 대해서는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까지 이뤄지던 이동제한·집중소독 등의 조치를 12km로 늘려 적용한 것도 확산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AI는 전남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형국이다. 이달 들어서도 최근 5일 간 연속으로 AI가 발생했고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한 달도 못가 10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이 됐다. 전남에서만 해도 총복(9곳)의 AI 발생 농장이 가장 많았다. 벌서·장흥·고흥·나주·무안·함평 지역 33개 농가가 사육하던 닭·오리 등 149만 9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5일부터 나주·영암지역에 대한 선제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 7일 늦은 ‘첫 눈’

광주지역에서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눈이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돼 광주에 첫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올 겨울 첫눈은 지난해보다 5일, 평년보다 7일 늦게 관측됐다. 적설량은 눈이 잠시 날리듯 내리는 데 그쳐 기록되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광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화순 영하 5도, 나주 영하 5.2도, 담양 영하 5.8도를 기록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탁회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 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